

예수 안에 역사, 역사 안에 예수<누가복음 2:1-7>

\*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역사가 황제 중심으로 혹은 왕과 총독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사람 되어 오시기 위해 역사가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역사도 잘 알아야 하지만 세상 역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론과 지식의 헬라 사고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 세상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히브리적 사고도 겸하여 가지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본문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인 누가로 사실 중심의 보고서 형식으로 쓰여 졌는데 예수를 믿는 로마의 귀족의 신변보호를 위해 데오빌로 각하라는 예명을 써서 예수 복음의 원리와 시작을 침례요한부터 시작하여 차근차근 세심하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기에 누가복음을 연구해 보면 예수는 역사안의 예수요 역사는 예수 안에 역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1)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로 세상, 역사와 권세를 주관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심(1-3)

당시 1인자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 총독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신처럼 추앙을 받던 가이사가 역사를 지배하고 총독 구레노와 헤롯대왕이 유대인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역이용하고 움직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의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이 맞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를 하나님처럼 추앙하던 로마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로마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확증적 편견이라고 하는데 이 생각은 무서운 것입니다. 군인숫자와 세금을 걷기 위한 인구조사를 남자들의 고향으로 찾아가서 호적정리를 하도록 강력하게 진행하여 요셉은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먼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이것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더라면 굳이 190킬로미터나 되는 베들레헴으로 찾아 가지 않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낳았을 것입니다. 즉 세상 역사가 성경 역사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헬라 사고에 빠져서 확증적 편향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 있어서 절대로 확증적 편향에 빠지면 안 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페르시아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역대하36:22-23, 에스라 1:1-2) 이것 역시 역사적으로 볼 때는 고레스가 역사를 지배하여 성경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 시키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역사를 인정하고 그 역사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 역사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활용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쪽에 서야 합니다. 예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이며 실제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 예수의 역사가 사실이듯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도 아래 활용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 2) 요셉과 마리아를 통한 성경의 이루어짐(4-5)

요셉과 마리아의 족보를 보면 결과적으로 다윗에서 만나고 아담으로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만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어느 쪽으로 보아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리라는 성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것은 역사속의 예수, 예수 안의 역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동정녀로 수태고지를 받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요셉은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을 것이며 조롱도 당했을 것이기에 요셉 혼자 호적정리를 하고 올 수도 있었는데 굳이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힘들고 먼 길을 가서 해산을 한 것입니다. 총독의 명령으로 역지로 호적을 정리하러 먼 길을 갔지만 이 역지로의 과정 속에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강제로 비틀어지고 마음대

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세상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상 역사를 지배하고 주관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역사 안에 내 삶을 넣어 주님이 나를 주도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순리임을 알고 그 안에서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 3) 역사속의 하나님의 때와 방법(6-7)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반강제로 역사를 지배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의해 역사가 쓰여 집니다. 세상 역사와 지혜보다 마귀의 권세가 탁월하여 세상이 마귀의 도구가 될 확률이 높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거룩한 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쓰여진 일들은 그 어느 것 하나 틀리는 것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 속에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과 천사의 기록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가이사도 구레뇨도 헤롯대왕도 예수님 출생을 환영하지 않았고 백성들도 해산 직전의 만삭의 마리아에게 방을 내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는 세상의 원리 원칙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혼속의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계실 방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삶인지 돌아보고 역사 속의 예수, 예수 안에 역사, 하나님의 방법과 뜻 안에 있는 역사,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알아서 비록 세상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고 이제까지 삶의 패턴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아기 예수에게 빈방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순수함을 가지는 성탄절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